

학문의 경계와 무경계의 인문학

박이문

1. 들어가는 말

동서를 막론하고 고대에서 중세에 이르기까지 학문의 중심에는 철학·종교·역사·문학·예술을 통칭하는 인문학이 있었고, 의학·공학·수학 등과 같은 과목은 오히려 그 주변에 있었다. 이러한 전통은 17세기에서부터 시작되어 미국 동부지역의 소위 ‘아이비 리그(Ivy League)’라 불리는 일곱 개의 명문 사립 인문대학(Liberal Arts College)에서 오늘날까지도 여전히 전승되고 있다. 이러한 인문학 중심 전통은 르네상스 이후 19세기 말에 이를 때까지만 해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 한 세기 동안 자연과학과 과학기술은 놀라운 발전을 보이며 그 발전이 가속화하고 있는 데 반해, 인문학은 위기를 경험하고 있다. 그것은 최근 한국을 비롯한 많은 나라에서 ‘인문학의 위기에 대한 경종’과 인문학 부흥운동의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는 현실로도 알 수 있는 사실이다.

인문대학을 나왔거나 인문학 분야에서 학위를 받은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직장을 얻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도대체 인문학의 정체성과 유용성에 관한 새삼스러운 물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인문학은 대체 무엇이며, 그것은 자연과학이나, 가령 경영학·의학·간호학·북한대학원의 '북한학과'와 어떻게 분별될 수 있는가? 그리고 인문학이 아직도 중요하다면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라는 물음의 형태로 나타난다.

2. 삶의 조건으로서의 진리발견과 기술연마

모든 개체적 생명체에게 자신이 처해 있는 주변환경을 구성하는 수많은 사물들이나 현상들에 관한 최소한의 분별력, 즉 인식능력은 가장 기본적인 생존조건이다. 하등동물과 고등동물, 동물과 인간, 한 인간의 사회적 성공과 실패의 차이는 어쩌면 바로 위와 같은 사물이나 현상에 대한 분별능력의 우열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생존 조건은 동물의 경우 선본능적으로 결정되지만 인간의 경우 자의적으로 선택하거나 인위적으로 구성한 교육환경에 의해서 크게 좌우되고 있다. 그러한 근대적 환경이 '학교'라는 교육기관이며, 이런 기관의 최정상에 대학이 자리잡고 있다.

'대학'이란 다양한 종류의 '지식을 조직적으로 연구하고 전수하는 교육적 활동인 동시에 그러한 활동을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 학문은 자연과 문화, 인간과 동물, 자연적 혹은 문화적 현상의 모든 것, 우주 전체에 대한 정보 혹은 그림, 즉 인식에 비유할 수 있지만, 그러한 인식은 언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것은 인식이 개념의 틀 속에서만 가능하고, 개념은 필연적으로 언어 속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어떤 인식대상이 개념의 틀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은 한 인식대상은 다른 대상과의 경계, 즉 차별화 속에서만 가능함을 의미하고, 사물들 간의 경계와 차별은 언어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다. 어떤 대상의 색을 빨강색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노란 색이나 검은 색을 인식하는 것과 차별되고, 그것들 간의 경계를 설정했을 때만 가능함을 전제한다. 모든 인식이 그렇다면 어떤 학문의 구별과 인식도 마찬가지다. 어떤 학문을 물리학 혹은 문학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물리학과 화학, 문학과 역사를 구별함을 전제하고, 문학과 자연과학으로 구별한다는 것은 그것들 간의 경계와 차별의 존재를 인정함이다. 이러한 사실은 어떤 현상 및 사실의 '지각'이나 '인식'이 언어와 별도로 독립해서 그 자체로서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다른 현상이나 사실과 구체적으로 구별된 맥락에서만 가능함을 의미한다. 학문이라고 부르는 어떤 존재, 즉 인식 대상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그냥 '학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존재하지 않고, 구체적인 x , y , z 라는 개별적인 학문만이 존재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총칭인 우주라는 대상도 마찬가지다. 우주는 근본적으로 완전히 구별할 수 없게 연속적으로 서로 연결되어 있어, 적어도 두 개 이상의 존재로 구별되기 이전의 단 하나의 존재를 말할 수 없듯이, 인식에서도 '인식일반'이라는 개념은 성립할 수 없으며 x , y , z 라는 특정한 개념으로 묶일 때만 인식의 의미를 갖는다. 똑같은 논리가 인식양식으로서의 '학과'를 이해하는 데도 적용된다. 어떤 감각 대상을 다른 대상과 구별하는 궁극적 근거가 언제나 지각 경험이라면 학문 간의 구별, 학과 간의 구별, 전공 간의 구별의 근거는 단 한 가지가 아니다. 어떤 학과를 물리학과로 부르고 그와 다른 어떤 학과를 간호학과로 부르는 근거는 사뭇 다르다. 어떤 학문을 물리학으로 부르는 근거는 인식대상의 존재론적 속성에 근거하지만, 다른 학과를 간호학과로 부르는 근거는 간호학이라는 학문이 '간호'라는 대상의 존재론적 속성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지향하는 병자의 복지라는 목적에 비추어서 붙여진 이름일 뿐이다. 이런 점에서 물리학이 세상의 물리적 측면에 대한 진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반면에, 간호학은 간호라는 활동이 지향하는 목적에 비추어 주어진 과목의 이름이다. 이런 점에서 전자가 명실 공히 진리 발견과

관련되는 학문이라면, 후자는 학문의 일부가 아니라 특정 목적 달성과 연계되는 기술에 속한다.

위와 같은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특정한 직업을 위한 특정한 기술과 관련되는 학문은 엄밀한 의미에서 학문이 아니고, 그러한 특정한 학문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대학은 직업학교이지 엄밀한 의미에서 대학이 아니다. 최근 인기 있는 경영학, 오래 전부터 많은 인재들을 모으고 있는 의학이나 간호학, 건축학이나 디자인학, 법학이나 정치학, 공학이나 경제학, 전산학 등등의 학과들은 엄밀히 말해서 학문의 범주가 아니라 기술의 범주에 속하며, 종합대학 내에 그러한 과목들의 교육을 위해서 전통적인 인문대학·교양대학·문리과대학과 나란히 세워진 수많은 종류의 단과대학들은 엄밀히 말해서 ‘대학’이 아니라 ‘직업 전문기술학교’라는 범주에 속하며, 전통적 대학의 핵심적인 학과목이자 흔히 인문학과목의 핵심을 구성하는 언어, 철학, 문학, 자연과학과 예술에 관한 기본 이론들만이 원래의 의미에 걸 맞는 ‘학문’의 범주에 속한다. 진리를 자연, 인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들에 관한 그림·재현이자 설명으로 규정할 수 있다면 오로지 바로 위에서 열거한 학과목들만이 그러한 진리, 즉 자연과 인간 그리고 우주 전체에 관한 부분적 혹은 총괄적 그림·재현이자 설명임을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특정한 학문은 어떤 근거에서 다른 학문과 구별되는가? 학문 간의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3. 학문들 간의 경계

학문을 어떤 대상에 관한 진리탐구로 규정한다면 학문의 대상은 자연이라고 부르는 물리적 현상과, 단순히 물리적 혹은 동물적 차원을 넘어선 정신이라는 비가시적 속성을 갖고 있는 인간 및 그러한 인간이 만들어내

는 비가시적인 차원을 지니고 있는 문화로 양분할 수 있다.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같은 학자들이 근대적 의미의 과학적 자연인식양식을 개발하기 이전에는 삼라만상이 종교적, 철학적, 문학적, 예술적 관점에서 의인적으로 목적론적 세계관에 의해서 설명되었다. 그러나 자연현상에 관한 근대 과학 이론의 발견에 의해서 과학적 세계관이 생겨났고, 그러한 세계관은 우주의 물질과 정신 사이의 절대적 경계를 주장한 데카르트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서 종교적, 철학적, 의인적 세계 인식양식과는 구별되는 근대적 의미의 과학적 인식 양식이다. 자연현상에 관한 진리 탐구 방법으로서의 ‘과학’이라는 학문이 굳건한 뿌리를 박고 있는 오늘날에는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전통적 세계인식양식으로서의 종교, 철학, 역사, 문학 등을 거의 모두 해체하거나 흡수하게 되고, 그 결과 모든 기존의 학문은 과학적 인식방법과 진리를 동경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닦고자 애써 왔다고 볼 수 있다. 여러 종류, 여러 분야의 과학 가운데서 대표적인 학문은 거시적이든 미시적이든 물리학이다.

오늘날 모든 분야의 과학들, 아니 모든 학문들이 궁극적으로는 단 하나의 물리학적 이론으로 환원될 수 있다고 믿는 물리학자, 자연과학자, 사회과학자, 심리학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자크 모노(Jacques Monod)의 『우연과 필연』(*Chance and Necessity*, 1971), 에드워드 윌슨(E. O. Wilson)의 『통섭』(*Consilience*, 1998), 리처드 도킨스(Richard Dawkins)의 『지상 최대의 쇼』(*The Greatest Show on Earth: Evidence of Evolution* 3, 2009) 등이 바로 그 예이다.

이러한 사실은 한편으로는 물리학으로 대표되는 근대 과학과 전통적으로 인문학을 대표하는 언어, 문학, 역사, 예술, 종교, 철학이라는 학문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해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아인슈타인의 과학 저술들과 『노자』나 『논어』, 『성서』나 『반야심경』이나 『햄릿』, 플라톤의 『대화록』이나 헤겔의 『정신현상학』 등의 텍스트가 그 내용에 있어서 전혀 서로 비교조차 할 수 없고, 다른 한편으로는 각기 그 주장의

진위 결정 기준에 있어서 결코 동일할 수 없음을 말해준다. 그것들이 다 같이 학문이라는 범주에 속한다 해도 그것들은 완전히 서로 다른 학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도 예를 들어 전통적인 ‘인문대학’의 영어 이름인 ‘Liberal Arts College’가 우리말로 ‘문리과대학 文理科大學’으로 번역되고, 그 文理科라고 할 때의 ‘文’과 ‘理’라는 한자漢字의 뜻이 각각 ‘문과’와 ‘이과’를 뜻하는 것임을 보아 알 수 있듯이 물리학, 화학, 생물학, 지질학, 정치학 등의 학과와 과목이 있었고 오늘날에도 그렇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이 물음에 대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관점에서 차례로 설명할 수 있다. 첫째, 인문대학의 교육이념, 둘째, 인문학의 핵심 과목을 구성하는 학과목들이나 학과들 간의 관계, 셋째, 학문일반과 그 밖의 모든 인간 활동의 현상과 양태와 결과로서의 문화현상들 간의 관계, 넷째, 우주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들이나 현상들 간의 존재론적 및 인식론적 관계가 그것이다.

첫째, G. W. Fry 교수의 표현대로 인문학 교육의 목적은 “사실, 이론, 행동과 관련된 사항들에 관한 합리적 토론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과 어떤 문제에 관해서 동의에 도달하고자 하는 능력과 마음의 준비를 하는 사람을 창조하는 데 있다”¹⁾라고 규정할 때, 둘째, 인문학의 핵심과목을 구성하는 언어, 철학, 문학, 역사 그리고 개념적 자연과학 간의 인문학 내부의 관계는 불명확하다. 시와 산문의 구별, 문학 텍스트와 철학 텍스트, 심리학, 철학, 예술 작품과 비예술 작품 간 차이의 근거가 무엇인지, 사회학, 심리학, 인류학, 경제학, 정치학이 어떤 근거로 분류되는지 막연하다. 셋째, 학문일반과 문화의 관계는 복잡하게 얽혀있다. 넷째, 인문학과 우주 전체와의 관계는 더욱 더 복잡하다. 인문학들 간의 상호관계와 관련한

1) Gerald Fry. 2010년 5월 14일 - 연세대학교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60년대-80년대를 지배한 미국 대학 인문교육을 맹렬히 비판한 『미국 정신을 폐쇄하다』(*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라는 유명한 책에서 블룸(Allan Bloom)은 다음과 같은 비유로 설명한다.

인문계 학과목들은 좋은 물건을 찾아내는 눈을 가진 사람들이 쓰레기 더미 속에 버려진 귀중한 보물들을 찾아내어 부자가 될 수 있는 장소인 파리의 이주 오래되고 거대한 베흐시장과 같다. 또한 그런 학과목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망명자들의 수용소에 비교된다. 거기에는 직업을 잃거나, 모국의 비우호적인 정권에 의해서 추방된 천재들이 무직으로 할 일 없이 빈둥거리며 지내거나 단순 노동을 하며 생계를 꾸려가는 곳이다.(371)

한편으로 전형적인 인문학인 문학, 역사, 철학 등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으로 대표되는 자연과학 계열의 전형적인 학과목들이 있다. 인문학과 자연과학은 거의 아무런 학문적 관계가 없다. 그런데도 앞서 예로 들었던 바와 같이 인문대학이 우리나라에서는 문리과대학(文理科大學)으로도 불려왔고, 실제로 미국이나 프랑스 등의 인문대학에서 자연과학 과목이 필수과목으로 들어가 있다는 사실, 즉 과학과목도 인문학의 일부라는 사실은 분명히 모순된다. 그러나 교양과목으로서의 과학은 실험실에서의 실험을 포함하지 않고 이미 발견된 과학적 이론들의 역사적 개요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다면 문학, 역사, 철학 등과 같은 인문학들과 교양으로서의 과학사 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진다. 어떤 의미, 어떤 수준의 과학과목도 인문계열의 학문과 절대적 경계가 부정될 수 있기에 자연과학 과목이 인문학 핵심과목의 하나로 존재하게 된 것이다. 그런 학과목의 예로서 한편으로는 자연과학 계열의 텍스트 중에서 앞에서 이미 언급했던 모노의 『우연과 필연』, 월슨의 『통섭』 등을 들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문계열의 텍스트 가운데서 아리스토텔레스의 『물리학』, 프로이트의 『꿈의 해석』, 핑커의 『빈 서판』 등을 들 수 있다.

과학과 인문학의 경계, 아니 모든 학문들의 경계는 우리가 사물현상들 간에 갖고 있는 수많은 경계들과 마찬가지로 실용적 편의를 위해서 조작한 관념적 방편에 불과한 것이지 존재론적으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현상들의 전체를 하나로 묶어 우주라고 부를 수 있다면 우주는 어떤 것으로도 절대적으로 구별할 수 없는 단 하나의 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가 눈으로 보고 객관적 존재로 믿어왔던 모든 것은 인식, 즉 관념적, 감정적 혹은 편의상의 개연적인 구별에 지나지 않는다. 인간은 생존을 위해서 사물현상들을 언제나 인식해야 하며, 한 현상의 인식은 다른 현상과의 경계, 즉 구별이나 차이를 전제한다. 그러나 그 경계는 인간에 의한 개념적, 인식적, 즉 인위적 경계 내지 단절이지 존재론적으로 실재하는 것은 아니다. 존재론적으로는 x라는 존재가 y라는 존재와 연속적으로 붙어있지, 그 두 존재 사이에는 아무런 경계나 어떠한 단절도 없다. 우주는 하나이며, 존재론적으로 모든 것들 사이에는 아무런 절대적 경계가 없으며, 사물들이나 현상들 간의 단절은 오로지 인식론적, 문화적, 인위적 개념의 차원에서 감정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그렇다면 전통적으로 인문학의 범주에 속하는 문학, 철학, 역사 등은 물론 인문대학의 한 과목으로 존재하는 과학, 더 구체적으로 자연과학사 과목들 간의 논리적 통합의 타당성은 물론, 인문학 계열의 학문들 일반과 자연과학 계열 학문들 일반 간의 통합의 논리적 타당성도 우주전체에 포함된 모든 존재, 모든 현상들 간의 관계를 통합적으로 서술하고 이해하는 인식적 틀로서의 존재-인식론적 매트릭스the onto-semantic matrix(박이문, 『동지의 철학』 75-6)를 적용함으로써 인문학과 자연과학 간의 경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위와 같은 개별적 학문, 혹은 학문계열 간의 경계와 그것들 간의 서로 모순되어 보이는 역동적인 관계가 설명될 수 있다.

4. 존재론적 연속성과 인식론적 단절성

눈을 뜨면 우주 안에 있는 조금씩은 서로 차별되는 무한 수에 가까운 개별적 사물 현상들이 우리의 감각기관에 의해서 의식 속에 들어와 지각된다. 여자와 남자, 노인과 중년, 개구리와 두꺼비, 여우와 늑대, 무궁화와 진달래, 연두색과 푸른색, 노란색과 베이지색, 동양인과 서양인, 아프리카 흑인과 남미 원주민, 남미의 인디오와 백인, 찬물과 더운물, 소나무와 전나무, 보르도 와인과 캘리포니아 와인 등 백만 가지, 천만 가지, 아니 무한 수의 개체들을 우리는 구별하고 지각한다. 그런 개체들을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들 간의 차이를 인식함이며, 그것들의 차이를 인식한다는 것은 그것들 간에 존재하는 경계를 그을 수 있음을 전제한다.

존재와 인식 혹은 인식과 존재 간의 관계는 언제나 상호 대립적이지만 그와 동시에 상호보완적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다. 존재하지 않는 것을 인식할 수 없듯이, 인식되지 않은 존재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며, 그와 동시에 존재하지 않은 것을 인식했다고 말할 수 없다. 무엇인가를 인식하기 이전에 그것의 실재를 주장할 수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무엇을 인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이처럼 모든 사물이나 현상에 있어서 인식대상으로서 존재와 인식주체로서 의식의 관계는 서로 뗄 수 없는 순환적 관계로 얽혀 있다. 그것들 간의 관계는 한편으로 존재론적 관점에서 볼 때 연속적이지만, 인식론적 관점에서 볼 때는 단절적이다. 개구리와 두꺼비는 절대적으로 다른 개념적 의미를 갖고 있지만 물리적으로 그것들을 구별·차별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 즉 그것들 간의 정확한 경계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실은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포함하는 우주는 존재론적으로, 즉 구체적으로 어떤 것으로도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것으로 경계를 그을 수 없는 단 하나의 존재·우주일 뿐이다.

우리가 우주 속에서 일상생활에서 발견하는 서로 다른 억만 가지 사물, 사건, 현상들의 차이, 그런 것들 사이의 차이와 경계는 절대적으로, 즉 구체적으로 실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적, 실용적, 도구적 필요에 따라 우리가 임의적으로 부여한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동일한 그리고 유일한 우주는 인간이나 개냐에 따라, 새나 구더기냐에 따라 임의적으로 달리 분류되고 재구성되며, 동일한 지구에서 사는 똑같은 종으로서의 인류라도 시대와 지리적 조건에 따라, 문화와 역사에 따라 서로 달리 인식, 분류 그리고 재구성된다. 한 시대의 문명과 문화의 차이, 한 지역의 문명과 문화의 차이는 각 시대, 각 지역의 문명과 문화가 우주의 모든 현상들 간에 경계를 긋고, 분류하고 재구성했던 방식의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박이문, 『동지의 철학』 127-56).

5. 무경계의 인문학 혹은 인문학적 학문의 통합

우주 안의 삼라만상들 간의 존재 의미론적 관계와 경계에 대한 위와 같은 분석을 통해 다음의 내용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인문학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학과목들, 그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 간에는 차이와 동일성이 존재한다. 둘째, 문학, 철학, 역사 등의 문자 그대로의 인문학 과목과 과학사나 기초적인 자연과학의 원리를 다루는 과목들 혹은 기초적인 개별적 자연과학 과목들 간에는 갈등이 존재한다. 셋째, 인문학 일반과 자연과학 일반 사이에 존재하는 학문적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여 우주 안의 모든 사물, 사건, 현상들을 단 하나의 통일된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다. 끝으로 넷째, 앞의 세 차원에서의 통합은 (자연과학자들만이 아니라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막연하나마 확신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과학에 의한 인문학의 흡수가 아니라 오히려 과학

자체도 하나의 인문학의 특수한 양식으로 이해할 때만 가능하다.

첫째, 인문학계열 학문들 간의 경계선은 정도는 다양하지만 근본적으로 모호하고 불분명하다. 예를 들어 『우파니샤드』, 『성서』, 『화엄경』 같은 종교적 경전들은 철학 텍스트로 읽을 수도 있고 철학 텍스트로서 그것의 진위를 검토할 수 있으며, 에드워드 기번의 『로마 흥망사』나 셰익스피어의 『희곡 작품들』은 역사책이나 문학작품으로 함께 읽을 수 있다. 인문학적 텍스트에서 가령 사회학이나 심리학이나 정치학 등 사회계열의 저서들은 철학이나 역사나 문학 텍스트들과 분명한 구별이 없다. 플라톤의 『대화록』이나, 노자의 『도덕경』, 장자의 『장자』 등과 같은 텍스트는 문학, 철학, 종교 가운데 어느 쪽에 분류해야 할지 정확한 기준을 찾아낼 수 없다. 푸코의 『말과 사물』이 철학 혹은 사회 심리학 혹은 정치학 가운데에 어느 범주에 들어가는지 명확히 알 수가 없으며, 들뢰즈나 데리다의 많은 책들을 철학, 문학, 사회학, 언어학, 정치학 등등 가운데 어느 학문에 분류해야 할지 막연하다. 그런데도 그것들을 자연과학의 학과목들과 구별하여 인문학이라는 범주 속에 분리하는 이유는 그것들에게만 공통되는 일종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고, 그러한 분류가 세계를 인식하고 살아가는 데 편리한 점이 있기 때문이다.

둘째, 인문대학 밖에서 문학, 철학, 역사, 예술, 언어학과 같은 과목들은 물리학, 화학, 생물학 등 과학계열의 학과목과 뚜렷이 구별된다. 그런데도 인문대학의 필수과목에는 전통적으로 원론적이지만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 같은 과목이나 혹은 과학사 가운데 한 두 개의 과학계열 과목이 '인문대학 필수과목'의 하나로서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관례는 적어도 교양적 차원에서의 과학과목은 전통적 인문교육에 필수적이라는 모순된 인식을 전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인문계대학에서 필수과목으로 존재하는 과학은 전문가들이 필요로 하는 높은 수준의 과학적 세계관이 아니라 하나의 정신사, 문화사, 문명사의 차원에서 교양적 수준의 과학에 관한 이야기이다. 앞서 언급한 자크 모노의 『우연과 필연』,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 혹은 폴 데이비스(Paul Davies)의 『신과 현대과학』(*God & the New Physics*, 1983) 등의 과학서적들은 이미 인문학적으로 채색된 즉 변형된 과학적 텍스트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문대학에서의 필수과목에 과학계열의 과목이 철학, 문학, 역사 등의 과목과 나란히 존재할 수 있는 사실은 모순이 아니며 물론 크게 이상스럽지도 않다. 거기에는 나름대로의 충분한 합리성이 있다.

셋째, 학문은 세계인식의 양식이다. 학문은 개별적으로 수많은 종류가 있고, 그것들은 다시 크게 인문과학계와 자연과학계로 양분되어 있다면 자연, 세계, 우주는 여러 차원을 갖고 있고 그것들은 각기 서로 다른 관점에서 그것의 서로 다른 층위層位가 인식되고 서술될 수 있음을 함축한다. 그러나 인식의 궁극적 목적은 그 대상의 다양한 현상을 가능하면 한 가지 보편적이고 통일된 관점에서 포괄적이고 전체적이며 통합적으로 포착하여 서술하고 설명하는 데 있다. 과거에는 종교, 문학, 역사, 예술 등이 서로 경쟁적으로 그러한 기능을 담당한다고 자처했다.

그러나 근대 이후, 특히 19세기 말부터 최근까지 놀라운 과학적 지식의 증대, 세련화,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짐에 따라 대부분의 과학자 자신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자연과학이, 궁극적으로는 물리학이 인문학, 사회과학 그리고 그 밖의 모든 인식양식을 포괄적으로 통합한 우주 및 인간에 대한 단 하나의 통일된 객관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왔고 또 믿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최근 세계 모든 대학에서 볼 수 있는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급격한 위축 혹은 소멸 현상 및 그러한 현상과 대비하여 자연과학계열, 특히 기술공학 계열의 상대적인 활기와 발전으로 충분히 입증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는 이런 오늘의 문화적, 학문적 현상 인식이 착각이라고 확신한다. 만약 모든 학문들의 통합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과학에 의한 인문학의 흡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과정은 정반대로 궁극적으로는 인문학에 의한 과학의 흡수로서만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모든 인식은 인문적이며, 물리학을 포함한 모든 과학적 인

식도 일종의 인문학 양식이다. 모든 인식, 모든 학문의 밑바닥에는 인문학이 깔려 있기 때문이다. 어째서 그러한가? 그것은 블룸의 표현대로 “인문학의 내용은 오늘날 전문화되지 않은 텍스트만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소크라테스 시대에 그러했듯이 오늘날 귀찮은 골치거리로 취급되는 자기 반성의 문제에 저항하는 진짜 전문적 문제들 만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는 종합대학 내의 나머지 학과에서 배제되고 있는 우주와 인간에 관한 총체적 물음들을 고집하는 학문이다.”(Bloom 372) 라고 규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더 설명이 필요하다.

인문학이 위와 같은 점에서 오늘날 흔히 생각하고 있는 바와는 전혀 달리 자연과학을 포함한 모든 학문의 밑바닥에 깔려 있다면, 인문학의 밑바닥에 깔려 있는 학문은 아무래도 철학이다. 바로 이런 점에서 학문의 학문, 학문의 왕은 아무래도 철학이라는 생각은 낡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제는 좀 긴 설명을 요청한다.

6. 우주의 총 통합적 학문으로서의 철학

눈을 뜨면 사방에는 우리의 의도는 물론 의식과도 독립된 수많은 것들이 보인다. 그것이 믿을 만한 것으로 인정될 때 우리는 그것을 ‘진리’라고 부르고 그것을 우리는 객관적 세계라고 말한다. 우리는 그렇게 보이는 모든 것의 총체를 세계라고 부른다. 우리는 우리가 그것을 보든 말든 언제나 그렇게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세계는 발견의 객관적 대상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선언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프로타고라스와 칸트가 주장했던 대로 우리는 현상을 지각할 때 우리가 이미 선형적으로 구비하고 태어난 지각의 범주라는 틀에 맞추어서만 세계를 인식하고, 이 때 세계는 발견의 대상이 아니라 났스

굿먼(Nelson Goodman)이 주장한대로 언어를 사용하여 개념적으로 즉 관념적으로 만들어 낸 구성물에 지나지 않는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토머스 쿤은 가장 객관적 지식으로 전제된 과학적 지식마저도 우리의 과학지식구조, 즉 과학자들이 전수받고 있는, 말하자면 이미 주어진 과학적 큰 이론적 틀로서의 패러다임에 의해서 상대적으로 달라진다고 주장한다.

위와 같은 사실은, 학문이란 것이 우리가 지각하고 사유할 수 있는 모든 현상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발견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구조와 능력에 맞추어 사물현상을 재구성하는 활동에 지나지 않으며, 세계는 주어진 객관적 존재가 아니라 우리가 재구성한 경험의 구조물에 지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인문학적 세계인식이 주관적, 따라서 상대적이라는 이유로 객관적, 따라서 보편적이라고 전제된 과학적 지식에 의해서 비판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가 완전히 잘못됨을 입증한다. 상황은 역전되어 총괄적 학문은 과학이 아니라 오히려 인문학일 수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 상식에 어긋나는 이러한 주장은 과학이 자연의 발견과 그것의 객관적 그림이 아니라 인간의 지성과 감성에 의해 관념으로 구성된 창조물이며, 따라서 그것은 인간적 즉 인식적 창조물이다. 왜냐하면 자크 모노가 선명하고도 간결하게 설파했듯이 이른바 과학적 인식, 즉 진리의 인식이 “지식의 윤리 ethics of knowledge”라고 할 수 있는 인위적 규범의 선택에 기초했기 때문이다. 진리는 규범의 산물이며, 그것은 인간의 결단에 의해 선택된 것이다. 궁극적으로 과학적 진리의 객관성은 세계의 일부가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결단에 뿌리박고 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인문학은 과학의 토대이며, 총괄적 학문은 과학이 아니라 인문학이다.

인간의 지적 욕망은 끝이 없고 동물적 충동은 한이 없다. 사람마다 자신의 기원과 아울러 우주전체의 기원과 그것의 궁극적 의미, 시간 및 공간에서 무한과 유한의 문제, 삶과 죽음의 궁극적 의미에 관한 물음을

끊임없이 던진다. 궁극적인 대답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도 물음은 계속 튀어나온다. 아인슈타인이 말한 대로, “과학이 없는 종교는 소경이나 마 찬가지지만,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다”. 인간은 모든 것에 관한 물음에 대해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대답을 찾고자 했던 파우스트이다. 여러 가지 인문학 과목 가운데서도 가장 근원적인 동시에 총괄적이고, 가장 투명한 동시에 체계적으로 인식하고자 한 시도를 노자와 장자, 그리고 플라톤의 철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리고 철학이야말로 인문학만이 아니라 과학 그리고 그 이외의 모든 지적 및 감성적, 즉 정신적 인간활동을 통합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가 될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말을 좀 바꿔서 나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 “철학 없는 과학은 존재하지 않고 존재할 수도 없으며, 과학적 사실에 어긋나는 철학, 즉 얽은 만족스러운 지식이 될 수 없다.”

참고문헌

- 박이문. 『통합의 인문학』. 서울: 지와 사랑, 2009.
 _____. 『동지의 철학』. 서울: 생각의 나무, 2010.
 Bloom, Allan. *The Closing of the American Mind*. Simon Schuster, 1987
 Barret, William. *The Illusion of Technique*. Doubleday, 1979.
 _____. *Death of the Soul*. Doubleday, 1986.
 Davies, Paul. *God & the New Physics*. Simon Schuster, 1979.
 Goodman, Nelson. *Ways of World making*. Hackett, 1978.
 Kuhn, Thomas. *The Structure of Scientific Evolution*. Harper & Row, 1962.
 Monod, Jacques. *Chance and Necessity*. tr. Austryn Wainhouse. Random House, 1971.
 Randall, Lisa. *Warped Passages*. Brockman, 2005.
 Wilson, E.O. *Consilience*. Knopf, 1998.

Academic Boundary and Humanity without Boundary

Park, Ynhui

(Simmons College and Postech - Emeritus Professor of Philosophy)

We divide the world into almost infinite numbers of the ontological categories of things such as mind and body, mountain and ocean, the solid and the liquid, the animate and the inanimate, frog and toad, male and female, and so on, as if these divisions were metaphysically fixed and eternal just like the Platonic Ideas. But as the Hindus have already known all along, the Brahman refers to the single indivisible totality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and is identical with the infinite numbers of individual realities referred to as Atman, and since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quantum mechanics has shown that reality is more like a chaotic Rorschach's inkblot in constant motion, indivisible and fluid, one single reality only open to be divided into the kinds of things that we humans like according to our particular needs and our convenience at a particular occasion.

Although ontologically the reality of the universe is one, conceptually and thus artificially, it is disposed to be divided into an infinite number.

So it is with the nature of the academic division itself as well as with its origins. The academic division between the humanities and the sciences, between philosophy and literature, for instance,

is not ontologically founded, not really real, but only conceptual, i.e., artificially and thus temporarily invented by humans for epistemological reasons, i.e., practical reasons in order to cope better with our daily world. The more the world becomes developed and thus complicated, the more the numbers of academic divisions grow. And as the numbers are increasing, knowledge about the world has become fragmented, partial, myopic, and confused.

This is what explains for recent fashionable call for academic unity, “consilience,” “fusion,” epistemological holism, and warnings about the crisis of the human sciences. But these warnings and calls for the fusion of different academic divisions remain empty unless we first clearly understand the semantic meaning of the unity, fusion, and consilience of the academic disciplinary divisions and its practical as well as its logical feasibility.

Most people seem to believe that the best candidate for such as possibility rests with science.

My views are (a) that the academic fusion as usually understood is either nonsensical or very hard, and (b) that it is the humanities, philosophy in particular rather than science, that can be the final candidate for such a task. For the scientific view of the world, which considers itself to be the only objective view, is one of many other human, hence, subjective conceptual construction.

주제어: 학문분과의 경계(academic disciplinary division), 통섭
(consilience), 통합(unity), 융합(fusion), 인문학(Humanity)

논문제출일: 2010. 04. 30

심사완료일: 2010. 05. 15

게재확정일: 2010. 05. 15

